

건축문화 사랑방

광주·전남·전북 건축사회 신문

News 2020.09.130호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전라남도건축사회
전라북도건축사회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5 T. 062.521.0025 F. 062.528.0026 발행인: 강현규, 조연준, 이길환
창간일: 2009년 11월 10일

02 시론

지속가능한 사회와 건축

03 종합

사랑에서 _ 코로나19 이후의 건축
건축사 Q&A
건축사 만평

04-05 광주 지역 뉴스

광주건축사회, 5개 구청 경관심의 제출 자료 통일 요청
광주시, 국토부 주관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공모사업에 선정
광주시, 항공사진통합관리시스템 구축

06-07 전남 지역 뉴스

전남건축사회,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주택 이재민 설계비 감면지원
전남건축사회, 건축사 협회 의무가입 관련 설명회 진행
순천지역건축사회, 섬진강변 주변 수해지역 복구 자원봉사 활동 진행

08-09 전북 지역 뉴스

전북건축사회, 전라북도와 손잡고 수해복구 지원 나서
전주시, 완산도서관 일대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
전주시, '2020 대한민국 도시재생 심포지엄' 문체부 장관상 수상

10 설계경기

음식 및 스트리마켓 건립 건축설계 공모

11 독자광장

책 소개 _ 이토록 공부가 재미있어지는 순간
한 편의 시 _ 불행 중 다행
세상사는 느낌 _ 다시 비대면, 2학기를 준비하는 학생들

12 전면광고

<http://gjkira.kira.or.kr>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

건축문화 사랑을 스마트폰에서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QR코드로 접속하신 후, 상단 '건축
문화사랑'을 클릭하시고 홈페이지에서 열람
PDF파일을 다운받으시면 구독 가능합니다.



지속가능한 사회와 건축



손승광 논설위원
 동신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sskshon@gmail.com
 • 전라남도 총괄건축가(현)
 • 광주광역시 건축위원회 위원장(현)
 • (사)한국주거학회 회장 역임

지속가능한 개발의 배경

금년에 일어난 중국과 한국의 대홍수는 매년 발생하는 '잠마'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큰 피해가 발생했다. 이것은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이자 지구의 경고라고 한다. 또, 지구온난화는 북극의 만년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높아지게 되면 해안의 많은 도시들이 해수면보다 낮아진다고 예측한다. 인류의 발전과정에서 많은 개발사업은 이산화탄소를 유발하였고 그 이산화탄소는 오존층을 뚫어 지구온난화를 촉진하였다. 지속가능한 개발은 개발하더라도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여서 지구상에 인간과 지구환경이 공존 공생하는 개발의 원리를 말한다. 우리는 그동안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지구환경 자원은 무한하다고 생각했으나 지구자원은 한계가 있으며, 인간이 지구와 공생하려면 환경에 대한 지식, 기술, 가치에 대하여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신개발 프로젝트로 인한 환경 자원의 훼손

우리나라의 급속한 경제발전은 새로운 제품, 새로운 주거단지와 건축, 신도시 개발에 익숙해져 있다. 대량생산을 위한 표준화와 생산기술이 각광을 받았으며, 이는 생태환경, 기존자원에 대한 보호는 소홀하였다. 이 프레임에 익숙한 세대들은 여전히 신속한 대량생산에 익숙해져서 환경과 인간의 공존, 친환경적인 방식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다. 개발시대의 경제성은 생산과정에 소요되는 비용과 판매 차익으로 산출한다. 그리고 소비자에게 인도된 이후의 운영, 유지와 관리 폐기 등의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과 환경부담을 경제성 평가의 범주에 넣지 않는다. 요즘은 공업생산품의 포장재로 플라스틱 처리로 인하여 심각한 상황을 경험한다. 건축재료의 사용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생산이 끝이 아니고 유지보수관리 쓰레기 처리까지를 하나의 행위 과정으로 보고 지구환경을 보호하는 단계로 진화하고 있다. 이와 같이 건축생산과 사용 그리고 폐기의 과정은 많은 지구자원을 소모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건축수명을 연장하는 기술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는 기존 건축물을 어떻게 관리하는가이다. 우리나라 아파트는 국가 전체 주택의 6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년 이상이 되면 철거 후에 재건축 등을 고려한다. 건축 후 30년 정도이면 그 철거 후 재개발인가 리모델링인가를 선택하는 것이 더욱 절실해진다. 그런데 철근콘크리트 수명은 60년 정도로 설계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그 수명의 반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건축물은 건축 당시에 경제수준을 반영하기 때문에 노후 건축물은 그 성능과 공간 기준이 현대기준으로는 이상적이지는 않지만, 개조하여 더 오랜 시간을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폐기해야 하는가보다 더 복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기존 건축물의 수명 연장을 위한 리모델링 시장은 건축계에 큰 기회로 등장하고 있다. 이 리모델링 기술의 적정성은 최소한의 투자와 개조로 최대의 효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한다. 건축수명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설계 초기부터 노후 건축물을 개조하기 용이한 설계기술이 채택되어야 한다.

자연에너지 활용과 저에너지 건축기술

건축은 인간이 생존하고 생활하는 데에 필요한 최적의 환경수준을 획득하는 과정이다. 기술발전은 사람들이 어떤 환경을 원하든지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위해서 건축기술을 채택하면서도 건축재료의 총사용량, 건축물의 수명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기술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선택과 저감방안을 소홀히 여기는 측면도 없지 않다. 석유에너지가 부족한 시대에 겨울철 에너지문제가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이다. 그러나 여름철의 냉방부하는 온난화가 진행되면서 중요한 문제로 등장했다.

건축물의 고층화가 이루어지면서 설비를 활용한 실내 환경의 조절은 기술발전이 보장하지만 자연환경과 통풍만큼 쾌적하지는 않다. 초고층 건축물에 채택된 창문 디테일을 중층 고층 건축에 적용하면 자연 통풍이 충분하지 않게 되는 건축물이 흔하게 볼 수 있다. 광주시청사는 자연 통풍이 부족하기 때문에 유리창문의 개조공사를 대대적으로 했었다. 이러한 경우는 간단한 기술의 실수이지만 매우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또, 주로 주거환경에 채택할 수 있는 선풍은 겨울 에너지를 활용하는 기술로 북유럽 선진국에서 잘 활용하는 기술이다. 그런데 여름에는 다습하고 통풍이 필요한 우리나라에서는 통풍이 원활한 개구면적을 확보하지 않으면, 냉방부하를 해결하기 어려운 기술이 되기도 한다. 자연에너지기술이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다는 것도 알 수 있다.

건축의 경제성 평가, 개발비용과 생애비용

친환경건축은 지구환경 보존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환경과 조화된 건축, 인간의 쾌적성 확보, 저에너지의 사용, 폐기물 발생의 억제, 기존 자원의 활용 극대화, 장수명 건축기술, 도시재생 등 다양한 목표가 있다. 공통점은 지구의 생태환경을 지키면서 에

너지 소모를 최소화하는 건축기술을 말한다. 친환경건축은 지구환경 자원을 최소한으로 활용하면서 인간에게 가장 가치 있는 건축을 추구하는 환경을 추구한다. 건축을 생산단계에서 경제성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이 존재하는 수명 전체를 고려하여 생산, 사용, 관리와 폐기의 전 과정을 대상으로 경제성을 평가하는 프레임으로 전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경제성 평가의 주체는 여전히 사업주이며, 평가 기준은 생산비용과 판매의 경제성이다. 건축물을 사용하고, 건축물이 가지는 수명, 건축사용 중에 발생하는 에너지의 경제성을 포함하는 데에 개발자가 좋아하는 경제성 평가지표는 아니다. 지속가능한 건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초기 개발프로젝트의 경제성과 건축물의 생애주기를 고려하는 경제성 평가가 어떻게 받아들일까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 기술자들이 건축주들에게 확신을 줄 수 있는 대안 제시의 책임도 크다.

다양성과 창의성을 위한 도시와 건축

오랜 기간 동안에 형성된 도시는 건축하는 시간이 흐르면서 건축물의 다양성이 축적된다. 도시에 축적된 건축물은 인간의 집단기억을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다. 대부분의 역사도시에서 지속성은 기존 건축물의 디자인 요소와 패턴을 존중하면서 전체적인 연속성을 가진다. 그런데 옛 건축물과 현대적인 건축물은 서로 이질적이기도 하고, 시대 배경이나 건축 목적이 달라서 어떻게 서로가 영향을 미치는가는 매우 큰 변화를 보여준다. 루브르박물관은 루브르궁전 광장에 인접하여 세우는데, 5층 정도의 볼륨을 광장의 지하에 넣어서 기존 건물의 역사적 공간을 존중하였다. 중세 왕정의 궁전 건축물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대적인 건축공간이 공존하는 획기적인 아이디어였다. 기존 도시건축의 층고, 도로의 패턴의 존중, 건축재료가 가지는 공통된 디자인 요소를 존중하면서 현대적인 건축이 유사의 조화를 가지기도 한다. 같은 도시에 있는 파리의 몽파르텐터는 부지환경이 중세도시의 건축물이 많은 지역인데 그 지역의 건축물과는 전혀 대조적인 디자인이나, 광장을 크게 조성하여 사람들의 접근과 모임과 도시광장으로써 공간적인 활성성을 열어주었다.

유럽의 많은 도시들에서 현대적인 건축물들을 많이 보는데, 이미 존재하는 역사자원, 도시의 콘텍스트를 존중하는 것은 기본이다. 무엇을 존중하며 어떻게 디자인하느냐 하는 것이 과제인 셈이다. 이들 도시들에서 기존 건축물의 질서와 물리적인 환경을 존중하는 것은 중세시대 기준으로 잘 건축된 석조 혹은 벽돌조 건축이 가지는 흔적은 기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과거의 건축물의 흔적과 활용 가치가 석조나 조적조와 같지 않은 전쟁 후에 지어진 저급한 건축물이 많아서 역사도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속가능성의 건축과는 배경이 많이 다르기는 하다.

전통건축이 진화하는 문화적 지속가능성

지속가능한 건축은 전통건축의 지속성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접근을 지향한다. 예를 들면, 한옥의 지속가능성은 전통한옥의 원형만을 고집하지 않는다. 미래에도 지속가능한 한옥건축은 미래사회의 생활상을 담아야 한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한옥이란 시대의 배경, 건축적인 배경이 과거에 머물지 않기 때문에 건축의 하드웨어와 공간구성이 새로운 수요와 요구에 맞도록 진화할 수 있는 것이다. 원형이라는 틀 안에 머무는 것은 과거에 화려했던 시대의 건축이며, 시대가 바뀌고 요구가 바뀌는 시대의 건축이 될 수 없다. 진화하는 스타일의 건축을 무엇이라고 해야 할까? 전통건축이 진화하는 것을 인정하면 문화적인 디자인 요소를 활용하는 새로운 건축디자인을 탄생시킨다.

역사적 사건과 장소성의 지속성

전남도청이 있던 장소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건축되었다. 또 전남방직과 일신방직이 있던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논의 중이다. 단일 프로젝트이지만 동시에 도시에 어떠한 기여를 할 것인가 등에 관한 다양한 논의 중에 사회적으로 장소적으로 집단기억의 흔적을 지속시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도시에서의 집단기억의 문제는 아시아문화전당에서 도청광장에 면한 도청건물이 어디를 보존하고 어디를 새로운 디자인으로 디자인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2년 동안 이어졌었다. 지역민의 집단기억과 장소성을 가꾸어 가는 방법에 대한 사회적인 논란도 중요한 경험이었다.

우리나라의 급진적인 발전은 새로이 만드는 것의 성공적이었다. 과거를 버리는 발전이었다. 이제는 세계 선두그룹에 진입하고 평가받는 국가로 성장하였다. 지키고 존중할 것도 많아졌다. 대량생산의 단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속도는 느려졌지만 보다 성장된 사회로 이동하려면 건축 또한 과거와 현재의 건축을 존중하고 활용하면서 미래의 건축과 도시를 가꾸어 가는 지속가능한 사회로 가는 길에 천천히 그리고 보다 정교한 건축을 추구하는 사회가 되어야겠다.

사랑에서 _ 일흔 번째

코로나19 이후의 건축

코로나19로 인해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상황을 헤쳐나가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n차 감염, 확진자, 자가격리, 비대면, 변종, 팬데믹, 섯다운 등은 흔하디흔한 용어가 되었고, 마스크 착용도 당연한 일이 되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치료제와 백신의 개발은 아직도 감감무소식이고, 확산과 대유행의 공포는 우리의 삶을 옥죄고 있다. 게다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혹은 새로운 감염병의 출몰 등을 예측하며 '감염병의 일상 생활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게 나오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그렇다면, 코로나19 이후의 건축은 어떻게 변할까?

혹자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어 도시화의 경향이 지금보다 더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따라서 한정된 공간 안에서 인구밀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도시의 건축은 더욱더 고층화 및 집합화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 주장은 접촉과 대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감염병 예방수칙과 대치된다. 실제로도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이동량이 많으며 밀폐된 공간이 수두룩한 도시에서 확진자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반대로, 비교적 저층의 건축물이 분산되어 있는 교외나 농촌을 선호하게 될까? 그 역시 장담하기 어렵다. 도시 생활의 편의성과 도시 건축물의 재산적 가치 그리고 비교적 풍부한 도시의 일자리를 포기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은 예방이 우선이나, 치료가 우선이나에 따라 선택지는 달라질 것이고, 그 선택에 있어서 치료율과 합병증 그리고 치명률은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거주지의 선택은 그렇게 유동적이라 할지라도 건축의 양식에 대한 변화는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도 건축의 근본적인 기능인 '피난처'로서의 역할은 당연히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물과 침입자, 눈과 비, 추위와 더위 등이 인간을 위협하는 외부적 요소였지만, 근래에 미세먼지가 추가된 바 있고, 앞으로는 감염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와 병원균도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과도한 비약일 수도 있지만, 머지않은 미래에 에어샤워기가 설치된 건물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고, 극단적으로는 무균실로 축조되는 건축물이 보편화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마저 든다. 어쩌면 집집마다 설치된 에어컨과 정수기 그리고 공기청정기가 그러한 건축물의 등장을 예고하는 전조증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든다.

인간의 삶이 코로나19 시대 전과 후로 나뉠 것이라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어떠한 강도로 나타날 것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분명한 것은 건축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건축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로서 그 시대와 사회 및 환경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아직은 코로나19 이후에 나타날 건축의 경향에 대해서 선불리 알기알부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 가능성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고 본다. 짧게는 양호한 치료공간을 제공해야 하고, 길게는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피난처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건축이기 때문이다.

자문위원 _ 서재형 건축사(archiseo@nate.com)

건축사 Q&A

▶ 세금계산서 발급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건축사사무소의 업무는 설계와 감리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건축사사무소의 경우 각각의 설계 감리계약서를 작성하시고 비용을 받으면 그때 계산서를 발급하는 관행으로 업무를 보시는 현실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 34조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를 보면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건축사사무소는 설계용역은 설계용역이 완료된 때, 즉 건축허가일로 보면 되고, 감리용역은 감리용역이 완료된 때이므로 공사완공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보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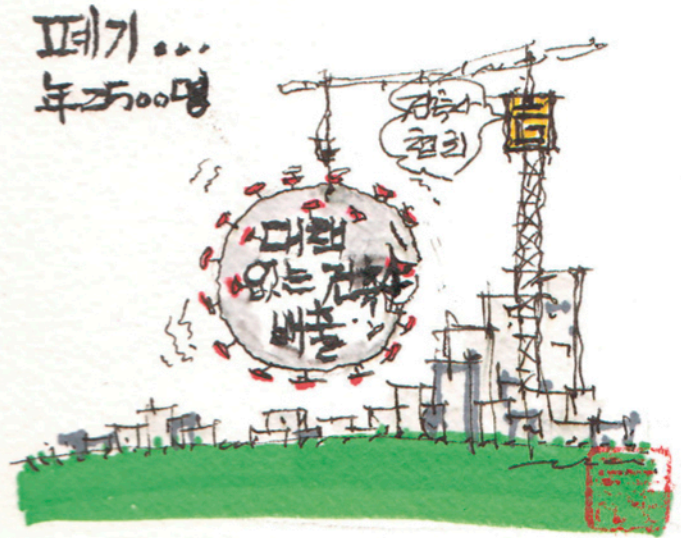
물론 이것은 계약서에 건축허가 완료 시 설계비 지급, 사용승인 완료 후 감리비 지급으로 계약했을 시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작성하니 예를 들었으며, 위 내용보다는 계약서의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설계비를 건축사용승인일에 전액 받기로 되어있다면, 그때 설계비 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또 설계계약서에 설계비를 건축허가일에 받기로 되어있다면, 실제 대금 지급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날짜로 계산서를 발급하셔야 가산세, 지연세 등이 없습니다.

위 계약서상의 계약일을 준수한다면 문제가 없고 통상적으로 허가완료, 사용승인 시 대금결제 등의 계약이 이루어진다면 허가일 기준으로 다음달 10일 이내에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지연수취와 지연발급에 따라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지연 수취는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0.5%, 지연발급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1.0%의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을 다다음달로 미루고 부가가치세 신고마감기한까지 넘겨버린다면 공급자는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로 공급가의 2%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보통의 경우 관청에서 공사착공 시에 계약서 등을 첨부함으로써 이에 계산서 발행에 대해 전산을 통해 검토하고 모니터링을 한 후 문제가 되어 보이는 업체에 대해서 그 사유를 소명하라고 하며 세금계산서상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업체에 세금부과 등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건축사 만평 _ 심상봉 건축사 作 /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



건축문화사랑

2009년 11월 10일 창간

- 발행처: 광주광역시건축사회
- 발행인: 강현구, 조연준, 이길환
- 창간발행인: 신정철, 김강수, 이성엽
- 역대발행인: 심상봉, 안길진, 국원식, 김남중, 윤문곤, 정명철, 박용득, 전병갑
- 초대편집인: 박홍근
- 편집인: 박종호
- 부편집인: 박주현, 임현정, 양우현
- 자문위원: 서재형, 정명환, 강동영
- 전담기자: 광승국
- 논설위원: 이순미, 신영은, 박신남, 강필서, 이종순, 백재봉, 정영범, 김미영, 정관성
- 편집위원: 윤미순, 양창근, 최정미, 김영규, 이원규, 임태형, 정영진, 허만수, 설혜순, 오선화
- 등록번호: 광주광역시 라00144
- 간별: 월간
- 등록일자: 2010-01-25
- 편집및인쇄: 레이아웃 T. 070-8277-2589
- 광고신청: T. 062)521-0025

광고 및 구독신청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을 바랍니다.

- 후면 전면광고 : 1,000,000원
- 후면 외 전면광고 : 700,000원
- 하단광고 : 350,000원
- 하단1/2광고 : 200,000원
- 구독료 : 20,000원/1년
- 구독료입금계좌: 예금주: 광주건축사회, 계좌번호: 신한 131-009-471898

건축문화사랑 신문

T. 062)521-0025~6 F. 062)528-0026

건축문화사랑 신문 발전기금을 모집합니다

- 발전기금: 1만 원부터
- 후원방식: 신한 131-009-471898 (예금주: 광주건축사회)
- 전라남도건축사회: 5,000,000원
- 전라북도건축사회: 5,000,000원
- 이본석 이본석 법률사무소: 100,000원

건축문화사랑 원고모집

건축문화사랑에 게재할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독자사진/지역소식/동호회소식/책/수필/수필/작품노트/건축작품/독자만평/기타(기행문, 시, 문학작품, 미담, 학위취득, 교수임용 등)
 원고마감: 매달 25일
 문의: 광주건축사회(T. 062-521-0025 / gjk@empal.com)
 1. 건축작품 및 기타를 제외한 모든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
 2. 원고에는 작가의 사진과 사무소명, 직책 및 약력을 첨부
 3. 원고는 아래 한글, 명조체, 10pt로 작성, 사진은 디지털파일로 제출



농성동 S사옥 프로젝트
 양동윤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
 광주 서구 풍암중앙로 91번길 4-41, 2층
 Tel. 062-527-5000

대지위치 :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25-25번지 / 대지면적 : 592.311㎡ / 건축면적 : 354.06㎡ / 연면적 : 1,332.345㎡
 건폐율 : 59.77% / 용적률 221.57% / 규모 : 지상 5층 / 용도 : 업무시설(사무소)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주요 마감 : 노출콘크리트

나에게 건축은 아름다운 스토리라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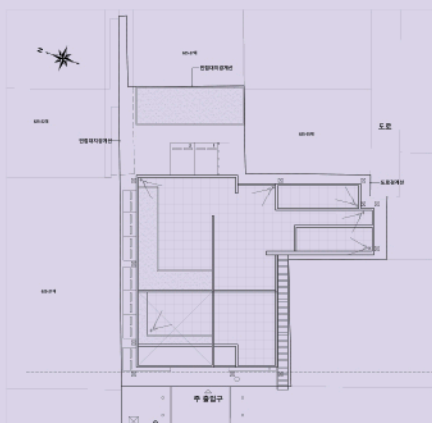
처음 설계의뢰인을 만나 대지를 구입했던 사연을 듣는 과정에 의뢰인의 인생이 나에게 전달되고, 의뢰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나에게 소중한 시간이다. 대화를 마무리할 시간이면 대부분은 설계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 같다.

의뢰인은 건설사를 운영하는 CEO로서 다양한 업종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많은 분야의 업무를 쉽게 관리운영 하고자 사옥신축을 계획하였다 한다. 구입한 대지는 넓은 도로에 접한 대지로 그 주변에는 건설자재, 전당포, 식당, 커피숍 등 오래된 건축물들이 연접해있는 환경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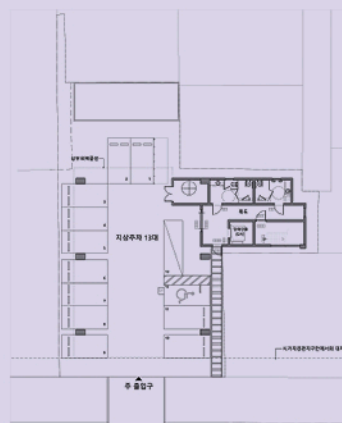
다양한 회사업무를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공간과 복잡한 주위 환경에 적응하려면 또한 단순함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면서 건설사의 이미지에 맞는 안정감 있는, 미래지향적인, 그리고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갖는 건축물을 설계하기로 하였다.

단순한 디자인과 색채로 계획하고자 하여, 외부재료를 노출콘크리트로 결정하고 매시브한 형태의 외부 형태를 계획하여 그 매스마다 벽면에 경사와 전면 부분에 조경을 함께 계획함으로써 세련미와 자연스러운 느낌을 갖게 하는 효과를 기대하였다.

내부 계획 중 마감은 단순한 마감을 하고자 콘크리트를 노출 마감을 사용하여 외부와 통일감을 주었고, 공간계획은 높은 층고에 어울리는 가구배치, 조명, 나무를 이용함으로써 업무 분위기를 바꾸고자 계획하였다.



배치도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3층 평면도

4층 평면도

5층 평면도



같지만 다른카드 마이더스아키디자인
협회원대상
다년계약 프로모션
 (스탠다드/프리미엄버전)

스탠다드/프리미엄 버전 다년계약 파격할인

3년 라이선스	
STANDARD	100만원 (VAT 별도)
PREMIUM	150만원 (VAT 별도)

5년 라이선스	
STANDARD	150만원 (VAT 별도)
PREMIUM	220만원 (VAT 별도)

+ 프리미엄 구매시 혜택

업데이트	인증	기능		
무제한	네트워크 버전 (카드 설치 무제한)	DWG 전 버전 완벽 호환	서드파티&리듬 (창호, 계단, 단열재 등)	교재/매뉴얼 무상제공

구매문의 1899 - 9260 www.midasCAD.com

카드 최대 6개월 무이자 가능

MIDAS ARCHI DESIGN



광주건축사회, 5개 구청 경관심의 제출 자료 통일 요청

구청별 제각각 심의자료 요구에 시민들의 불편 초래 등 문제점 발생

광주건축사회(회장 강현구)는 지난 7월과 8월, 광주시 5개 구청에 경관심의 제출자료 통일 등 경관심의 관련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개선을 요청했다.

광주건축사회는 회원사들로부터 건축 관련 5개 구청의 경관심의를 제출하는 심의자료가 과도하게 많고, 5개 구청마다 통일되지 못하고 상이하하여 업무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민원을 접수받아 개선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이다.

그동안 경관심의 제출자료가 각 구청별로 상이하하여 건축주의 과도한 심의 비용 발생과 혼선을 빚고 있다는 시민(건축주)들의 민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바 있다.

경관심의 자료 제출은 남구청에서 접수받고 있는 자료목록을 기준으로 하였는데 크게 사업개요와 경관현황분석, 경관기본계획, 건축계획, 외부계획에 대한 부분으로 나뉘었다.

사업개요는 경관체크리스트와 설계개요, 투시도(주경), 투시도(야경) 자료이고, 경관현황분석은 사업개요와 주변현황도, 조망분석, 경관기본계획은 광주시색채지침과 입면색채계획, 조경계획도, 건축계획은 배치도와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외부계획은 야간경관계획과 옥외광고물계획, 주차계획으로 자료 제출을 통일하도록 요청했다.

이와 함께 경관심의위원 구성 시 교통, 구조 등 비관련 분야를 제외한 경관 분야와 관련된 전문가로만 구성하고, 심의자료도 종이 출력물이 아닌 파일로만 제출하여 심의 시 모니터로 진행하도록 심의환경 개선도 요청했다.

이에 각 구청에서는 해당 법령에 따른 자료를 제출받고 있고, 각 요청 사항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회신했다.

한편, 광주건축사회는 앞으로도 회원사들이 겪고 있는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접수를 받아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광주시, 국토부 주관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공모사업에 선정

15년 경과 국공립어린이집 2곳, 보건소 3곳 등 5곳 대상 추진

광주광역시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에 국공립 어린이집 2곳, 보건소 3곳 등 총 5개 사업이 선정됐다고 지난 8월 초 밝혔다.

광주시는 이 사업이 오는 2045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추진 중인 '광주형 그린뉴딜 종합계획'의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형 그린뉴딜 종합계획'은 광주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 감축하고 2045년에 탄소중립(Net-Zero) 도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이다. 이 계획은 △IDEA(인프라 Infra, 데이터 Data, 환경시설 Environ, 인공지능 Ai)를 기반으로 시민 모두가 녹색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녹색전환도시 △녹색전환을 통해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제로화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통해 기후재난으로부터 가장 안전하고 쾌적한 기후안심도시 △녹색산업 육성으로 시민의 삶과 일자리를 지켜주고 소외받는 일자리를 다시 일으켜주는 녹색산업도시 등 3대 전략으로 추진하게 된다.

올해 추진하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정부의 그린뉴딜 사업 중 노후 건축물 리모델링 사업으로, 준공된 지 15년 이상 경과된 국공립어린이집, 보건소, 공공의료시설이 대상이며 노후된 건축물의 에너지, 생활환경, 신기술시스템, 미관 등을 신축 건축물 수준으로 개선하는 사업이다.

광주시의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은 총 5개 시설로, 화정2동어린이집·효사랑하 나어린이집 등 어린이집 2곳, 서창보건진료소·구소보건소·화장보건소 등 보건소 3 곳이다. 총사업비는 18억 2,500만 원이며 이 가운데 국비는 70%인 12억 7,800 만 원에 이른다.

주요 사업내용은 고성능 단열·창호·설비 개선을 통한 에너지성능 향상, 환기시스템 교체 등을 통한 실내 공기질 개선,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등 IT 인프라 구축이다. 이 사업을 통해 전국적으로 12만 톤 정도의 온실가스가 저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공공건축물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계층 이용 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광주시는 5개 자치구와 상호 협조체계를 구축, 유기적으로 연계해 올해 공모 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국공립어린이집 28곳, 보건소 10곳, 공공의료시설 4곳 등 총 42개 시설이 2021년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시, 항공사진통합관리시스템 구축

10월 1일부터 시민 서비스 제공... 토지·건축행정 전반에 활용

광주광역시는 항공사진 및 판독현황도 관리체계를 웹으로 전환하는 '항공사진 통합관리시스템'을 지난 8월 4일 구축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부터 시비 3억 5,000만 원을 투입해 추진했으며, 종이 없는 디지털

현장조사 환경을 마련하고 축적된 도시변천 영상 이력을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추진했다.

지난 2012년 추진한 판독현황도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후속 사업으로 건축물대장 정보 등 각종 공간정보를 연계한 불법 무허가 건축물 예방·단속과 토지·건축행정 전반에 활용함으로써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토록 했다.

그동안 자치구에서 수작업으로 조사 대상을 선별하고 종이 도면과 조서로 현장 조사를 수행해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됐지만,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대상을 선별하고 모바일을 통해 위치 확인과 위법행위 조사 결과의 자동갱신이 가능토록 했다.

처리 기간과 정확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업무효율을 높이고 공평 행정을 구현해 행정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시가 보유하고 있는 축적된 항공사진 자료를 웹서비스 해 시민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도시변화상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연도별 비교와 중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9월에 시범운영하고 10월 1일부터 공식 오픈해 행정 전반에 활용하고 대시민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제24회 광주광역시 건축상 작품모집공고

1. 응모대상

- 광주광역시 관내에서 최근 5년 이내(공고일 기준)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이나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건축물(리모델링 포함). 다만, 광주시에서 이미 시상 받은 건축물은 제외함.
-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업무 신고를 한 자의 작품에 한함.

2. 시상 구분 및 부상

- 시 상 : ▪ 주 거(리모델링 포함) : 금상(1점), 은상(1점), 동상(1점)
▪ 비주거(리모델링 포함) : 금상(1점), 은상(1점), 동상(1점)
- 부 상 : 설계자 ⇒ 상패 및 상금 / 시공자 ⇒ 상패 / 건축주 ⇒ 건축물에 동판 부착
▪ 금상-주거/비주거, 설계자 [각각 상금 1,000,000원]
▪ 은상-주거/비주거, 설계자 [각각 상금 400,000원]
▪ 동상-주거/비주거, 설계자 [각각 상금 200,000원]

3. 제출기간 : 2020. 9. 7. (월) ~ 9. 25. (금) 18:00

4. 제출장소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5, 광주건축사회관 4층 광주건축사회(062-521-0025~6)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사무국으로 문의 바랍니다.

홈페이지: <http://gjkira.kira.or.kr> Tel. 062)521-0025~6 Fax. 062)528-0026

광주 회원동정

• 입회

- 김용래 건축사 / 빛고을 건축사사무소 / 광주 북구 서암대로 283
- 김수현 건축사 / 동네 건축사사무소 / 광주 동구 문화전당로23번길 3-1, 301호

• 변경(소재지)

- 김홍용 건축사 / 더엘림 건축사사무소 / 광주 서구 동천로 10번길 12-6, 1층 01호
- 장경수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진양 SPACE / 광주 서구 시청로 81, 대아빌딩 4층
- 나현엽 건축사 / 그린 건축사사무소 / 광주 북구 유동길 39
- 최시화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가온 / 광주 서구 상무민주로 12, 3층 302

• 결혼

- 정순종 건축사 / (주)예광 건축사사무소 / 자녀 결혼 - 09월 26일(토)

• 부고

- 양주영 건축사 / 씨에이그룹 건축사사무소 장인건축 / 부친상 - 08월 12일(수)
- 김옥재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지음 / 모친상 - 08월 15일(토)
- 김상문 건축사 / (주)그룹포에이 건축사사무소 / 부친상 - 08월 22일(토)
- 양해성 건축사 / 앤드 건축사사무소 / 모친상 - 09월 05일(토)
- 이왕범 건축사 / 해오름 건축사사무소 / 모친상 - 09월 05일(토)
- 박대운 건축사 / 대운 건축사사무소 / 부친상 - 09월 07일(월)



이본석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 본 석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82, 2층
T . 062-228-0787~8
F . 062-228-0789
M. 010-2736-0787
E . lbs0787@daum.net

-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
- 군법무관 15기 임용
- (현)광주건축사회 법률 자문변호사
- (현)광주광역시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 (현)전남지방경찰청 징계위원회 민간위원
- (현)부동산개발협회 광주지회 자문변호사
- (전)영무토건 자문변호사
- (전)광주광역시청 법률지원 자문위원



툽머리해수욕장 펜션

최병구 건축사
(주)디토 종합건축사사무소
전남 나주시 월정5길 81, 4층
Tel. 070-4323-7270

대지위치 :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809-6번지 / 대지면적 : 1,293.00㎡ / 건축면적 : 496.56㎡ / 연면적 : 1,787.86㎡
규모 : 지하 1층, 지상 4층 / 용도 :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 구조 : 철근콘크리트 / 주요 마감 : 석재마감



전남건축사회,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주택 이재민 설계비 감면지원

전남지역 내 집중호우 기간 중(7월 28일~8월 11일) 피해주택(전파, 반파, 침수) 대상

전남건축사회(회장 조연준)는 이번 집중 호우 기간 중(7월 28일부터 8월11일) 피해를 입은 전남지역 내 이재민을 위해 피해주택(전파, 반파, 침수)에 대한 설계비 감면지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설계비 감면은 전남건축사회와 전남도가 협약한 사항으로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택(전파·반파·침수) 복구 시 건축설계비 50%를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신청은 2021년 7월 27일까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후 증빙서류(피해사실 확인서 등)를 발급해 주변의 건축사사무소에 제출하면 설계비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지역 읍면동사무소 또는 전남건축사회 사무국(Tel. 061-285-7563)으로 문의하기 바란다.

전남건축사회, 건축사 협회 의무가입 관련 설명회 진행

지난 8월 12일 보성에서... 대한건축사협회 석정훈 회장 직접 설명 나서



전남건축사회는 지난 8월 12일 전남 보성 다비치콘도 일리홀에서 건축사 협회 의무가입 관련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석정훈 회장과 조용범 부회장, 박용묵 이사, 정명철 총무이사가

참석했고, 전남건축사회에서는 조연준 회장과 한형민 부회장, 최세호 부회장, 이사 및 지역건축사회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석정훈 회장은 이 자리에서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에 선출되고 회원의 권익 보호와 업역 확대를 위해 지난 20년간 폐지되어 있던 의무가입을 되살리려고 노력해왔다”고 밝히며 “우리는 의무가입을 꼭 이루어서 건축사 자격대여를 근절하고 다른 분야에서의 업역 침해를 막아야 하며 우리에게 지워지는 무한한 법적 책임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석정훈 회장은 의무가입 역사 및 추진 일정과 조치사항 등을 설명했으며, 조연준 회장은 건축사들의 협회 의무가입을 위한 제도 시행을 위해 도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순천지역건축사회, 섬진강변 주변 수해지역 복구 자원봉사 활동 진행

8월 13일 순천시 황전면 용림마을에서... 순천시청 건축과 직원 및 회원 13여명 참석



전남 순천지역건축사회(회장 조익선)가 순천시청 건축과 직원들과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본 순천 황전면 용림마을을 찾아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섬진강변에 위치한 용림, 비촌, 복호마을은 이번 집중호우로 섬진강 수위가 상승하면서 주택이 침

수되어 주민 91명이 긴급 대피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지난 8월 13일 순천지역건축사회에서는 13명이 순천시청 건축과 직원과 함께 민관합동 봉사단을 꾸려 피해 주택 내부에 흉물물로 뒤덮인 집기와 물품 등을 닦고 생활 쓰레기를 치웠다. 또 생수와 도시락, 간식을 전달하며 자원봉사자들과 피해 주민을 격려했다.

순천시 건축과 관계자는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더 많은 손길로 도움을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다”면서,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순천지역건축사회는 71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순천시 건축민원 상담실 운영에 따른 전문과 지역사회 봉사활동, 순천시 건축경관계획 등 건축물의 품격 향상과 도시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순천시의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 시정의 동반자로 함께하고 있다.

나주시, 읍성권 개발사업 마스터플랜 본격 가동

2023년까지 2,500억 원 규모 역사·문화·생태·시설 개발 사업 28건 추진



나주시가 원도심 읍성권 활성화를 위한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속도와 내실을 기하고 있다.

천년 목사고을 중심지의 역사적 정체성에 부합하는 마스터플랜을 기반으로 오는 2023년까지 2,500억 원 규모 28개 사업을 완수할 계획이다.

8월 초 나주시에 따르면 ‘읍성권 마스터플랜’은 각기 다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는 읍성권 지역 각종 개발 및 공공사업을 상호 균형과 조화를 중시하는 통합적 관점에서 추진하기 위한 도시 개발 전략이다.



톱머리해수욕장에 위치한 대지는 좁은 도로를 지나 소나무 숲에 둘러싸여 있고, 소나무 냄새와 바다의 냄새가 어우러지는 하늘에서는 경비행기의 착륙을 마주한다.
 좁은 도로와 경사지로 이루어진 대지를 이용하여 톱머리해수욕장의 쉼터와 편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 고민했다.
 경사지를 활용하여 지하층을 최대한 넓게 만들어 편의 공간을 만들고, 대지 안쪽으로 공간을 최대한 넣어 좁은 도로의 숨통을 트이게 만들었다. 상부층은 대지 주위 자연의 냄새를 즐기기에 테라스를 만들고 옥상을 오픈하였다.
 주변 대지 조건들을 마주하는 매스에 남겨진 공간은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될 것이다.



시는 플랜 세부 추진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9월 관련 용역에 착수, 7월 최종 결과 보고회를 개최한 데 이어 최근 읍성권 주요 사업 현장점검 투어를 실시했다.

읍성권 개발은 '추억을 담아가는 박물관도시 나주 목사고을'을 비전으로 핵심 방향인 도심권 도보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2,500억 원 규모 역사·문화·생태·시설 분야 중·장기 사업 28건을 추진한다.

일상 생활권과 접근성이 좋은 다양한 역사문화, 생태자원을 주민이 향유할 수 있게 하고 도보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주 골자다.

점적 관광개발 방식이 아닌 현존 자원을 동선에 따라 연계하는 방식으로 관광객의 체류시간 증가에 따른 사회문화·경제적 편익이 기대된다.

주요 사업은 △원도심 청년 창업거리 조성 △나주 문화도시 조성 △나주목 향청 복원 △나주시 배전선로 지중화 △나주읍성·죽림동 도시재생 △남산 시민의 숲 조성 △나주천 생태하천 복원 △중앙로 포장공사 △전통한옥마을·금성산 국립숲체원 기반시설 조성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 등으로 역사관광과 문화예술과 도시과 등 시청 13개 부서가 주관한다.

현재까지 '중앙로(신동아약국~중앙로사거리 구간) 포장 공사'와 '로컬푸드 직매장 2호점 금남점 개장' 사업 2건을 완료했다.

올해 안으로 '나주읍성 도시재생뉴딜사업', '서성벽 특별관리구역 조성', '서성문~나주천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읍성권 전통한옥마을 경관정비사업' 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전남 장흥 가산 건축 정기호 건축사, 장흥군에 수해 복구 성금 기탁

지난 8월 18일 집중 호우로 수해 피해 입은 지역 돕기 위해 100만 원 기탁



전남 장흥 지역 가산 건축사사무소 정기호 건축사가 지난 8월 18일 장흥군에 집중 호우로 수해 피해를 입은 지역을 돕기 위해 100만 원의 성금을 기탁했다.

정기호 건축사는 "기탁금이 수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조금의 도움이라도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흥군은 기탁금으로 쌀, 식수 등의 생필품을 구입하여 수해 피해 지역에 전달할 예정이다.

순천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국비 8억 원 확보

사업에 선정된 5곳 월등 보건지소, 황전 회덕·비촌 진료소와 연향·강청 어린이집 등

순천시는 지난 8월 국토교통부의 한국형 뉴딜(그린뉴딜) 사업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5곳이 선정되어 8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사업에 선정된 5곳은 월등 보건지소, 황전 회덕·비촌 진료소와 연향·강청 어린이

집으로 총사업비 11억 3천만 원으로 그린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그린 리모델링이란 정부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성장 동력으로 추진하는 한국형 뉴딜(그린뉴딜) 사업 중 하나로, 보건소(진료소), 공공립 어린이집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공공건축물 중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노후 시설에 고성능 창호, 고효율 단열재와 강제 환기장치를 교체하는 등 에너지 성능과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여 노후 건축물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사업이다.

순천시는 국토교통부에서 긴급 추진한 이번 사업에 적극 대응한 결과, 전국 선도 도시 19개 지역에 우선 선정되어 생태도시의 명성에 걸맞게 우수 시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하반기에 대상시설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실시설계 용역과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2021년 사업 공모를 위한 사전 조사도 준비 중이다.

전라남도건축사회 실무교육 일정 연기

사유: 코로나19의 재확산 추세로 전라남도의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 및 집합행정명령이 발동됨에 따라 교육장 대관 취소로 인하여 실무교육 일정을 무기한 연기. 추후 실무교육 일정계획 수립 후 공지할 예정

순천시, '2020년 아름다운 건축상' 작품 공모

- 응모대상 : 2016년 이후부터 작품 접수일까지 사용승인 된 순천시 소재 건축물
- 응모구분 : 주거와 비주거 / 우수작 1개소, 가작 2개소 선정
- 접수기간 : 2020년 10월 14일부터 10일간
- 접수방법 : 응모를 희망하는 설계자와 건축주는 순천시 건축과에 응모신청서와 작품설명서, 심사용 패널 등 응모서류를 제출
- 문 의 : 순천시 건축과(061-749-6379)

전남 회원동정

- 변경(소재지)
 - 손경식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아키펠 / 전남 순천시 중앙로 37, 202호
 - 인재선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토우 / 전남 순천시 연동남1길 78, 2층
 - 황상아 건축사/ 상아 건축사사무소 / 전남 순천시 비봉2길 3-30, 201호
 - 국원식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한신 / 전남 순천시 장명로 33, 이수빌딩 2층
- 변경(상호 및 주소)
 - 강정성 건축사/ (주)이지 건축사사무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약로22번길 30, 210호

전북건축사회, 전라북도과 손잡고 수해복구 지원 나서

지난 8월 12일 협약 체결, 재해주택에 대한 설계비와 복구 컨설팅 무료 제공



전북건축사회(회장 이길환)는 전라북도와 협약을 맺고 집중호우에 따른 도내 재해주택에 대한 복구지원에 나선다.

지난 8월 7일부터 11일까지 내린 폭우로 전북 도내에서 전파 22동, 반파 10동, 침수 930동 등 총 962동의 주택이 피해를 입은 바, 전북건축사회는 재해주택에 대한 설계비와 복구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기로 전라북도와 8월 12일 협약을 체결하여, 기획단계부터 맞춤형 컨설팅으로 착공, 준공까지 일괄 지원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수재민들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길환 전북건축사회 회장은 “이번에 수해를 입은 도내 재해주택에 대해 건축사의 재능기부로 하루빨리 주택이 복구되어 수재민들이 주거생활이 안정되고, 정신적·물질적 상처가 빨리 치유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북건축사회는 회원들의 수해복구 성금을 십시일반 모금하여 빠른 시일 안에 수해가 심한 지역에 성금을 전달할 계획이다.

전주시, 완산도서관 일대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

전주시립도서관, 8월 12일 완산도서관 일대 문화재생 마스터플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전주 대표 도서관이던 완산도서관이 전주한옥마을, 서학동예술마을, 완산공원과 연계된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된다.

전주시립도서관은 지난 8월 12일 김승수 전주시장과 용역사인 서영주 도시건축경영연구원 대표, 백진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완산도서관 일대 문화재생 마스터플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연구용역은 문화시설이 부족한 완산동 완산도서관 일대에 주민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을 구축하고, 인근 한옥마을과 서학동 예술마을, 남부시장, 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벨트, 완산꽃동산 등과 연계한 관광거점으로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이날 서영주 대표는 “완산도서관 일대에는 다양한 인문·사회·문화적 자원들이 자리해 있다”면서 “녹두관, 초록바위 등의 인문학적 역사적 상징을 지닌 영역과 곤지산과 완산칠봉 등 자연과 휴식공간, 한옥마을과 남부시장, 서학동예술마을에 이르는 관광의 영역을 광역적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문화재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완산도서관 일대 문화재생의 기본전략으로 △마당 △옥탑 △주요 요소 간의 연결 △앵커시설 등이 제시됐다.

먼저 완산도서관 앞마당의 경우 ‘언덕 위 누리마당’이라는 주제로 종교(동학)와 놀이, 역사, 문화, 놀이, 일상적인 활동이 가능한 광장 형태로 조성하기로 했다. 또한 완산도서관만의 재생 포인트로 옥탑 문화를 활성화시켜 신선한 경관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동시에 완산도서관의 메인 입구의 언덕길과 초록바위와 녹두관 등으로 연결되는 길을 매력적인 보행로로 개선시키자고 주장했다. 또 도서관 주변 동네의 책 쓰기 문화의 분위기를 형성시키기 위해 주민들의 창의적인 체험과 학습이 가능한 동네책방,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공간 등 다양한 앵커시설들을 조성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시는 연구용역을 올 연말까지 진행한 뒤 세부 사업계획과 연차별, 단계별 추진방안을 마련해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완산도서관은 오는 2022년까지 총사업비 55억 원을 투입해 책공방, 독립출판물 전시, 어린이 책 놀이터 등 책을 읽고 쓰고 만드는 독립출판 전문도서관이자 시민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전주시, ‘2020 대한민국 도시재생 심포지엄’ 문체부 장관상 수상

서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팔복예술공장 등 전국에 우수사례로 소개도



전주시는 최근 충북 청주에서 열린 ‘2020 대한민국 도시재생 심포지엄’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문화적 우수성을 인정받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지난 8월 26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분야의 선도도시로 초청을 받아 ‘사람·생태·문화가 살아있는 도시재생’을 주제로 사례를 발표했다.

신계숙 전주시 사회연대지원단장은 사례발표에서 △예술가와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재생 서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오래된 폐공장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생시킨 팔복예술공장 △성매매 집결지를 여성 인권과 문화예술이 꽃피는 공간으로 재생시킨 서노송예술촌 프로젝트 등을 소개했다.

이에 앞서 시는 전통문화 중심의 도시재생을 비롯해 전주역세권 혁신성장 르네상스, 용머리 여의주마을, 서학동예술마을 등 4개 권역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해왔다. 또 남노송동 새뜰마을 등 4곳에서 새뜰마을 조성사업과 다가동 도시재생 인정사업 등 총 1,200억 원 규모의 도시재생사업이 도시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다.

한편 ‘도시재생 뉴딜의 진화’를 주제로 열린 ‘2020 대한민국 도시재생 심포지엄’은 SBS CNBC,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동 주최하고 2020 대한민국도시재생심포니 조직위원회와 충청북도, 청주시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가 특별 후원했다.

군산상공회의소

장종우 건축사 / (주)장인 건축사사무소

전북 군산시 조촌안3길 12-5
Tel. 063-452-7012



**군산시 주택·건축 분야 3개 부서 직원, 취약아동 마스크 300장 후원
작년 전북도 진행 주택·건축분야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 선정으로 받은 포상금으로...**

군산시 주택건축 부서(주택행정과, 건축경관과, 도시재생과)는 지난해 전라북도에서 진행한 '2019년도 주택·건축분야 종합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가운데 포상금 중 일부를 취약아동을 위한 마스크 300매(KF94)를 구입 기탁한다고 지난 8월 27일 밝혔다. 구입한 마스크는 이달 중 군산시 드림스타트를 통해 마스크 구입이 어려운 취약아동을 선별해 지급된다.

군산시는 지난해 총 8개 분야·22개 항목·38개 지표에 대한 주택·건축분야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도심 및 농어촌 주택개량·빈집정비·재생사업, 지역건설 활성화, 저소득층집수리사업 등 우수수범사례 및 공모사업 등 전 분야에서 모범적인 업무추진 및 시책 발굴에 앞장서 최우수 평가를 받은 바 있다.

특히,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주거 취약계층의 투명·쾌적·안전한 주거문화조성을 위한 통합관리 및 주거안정지원사업 등 서민주거안정 분야의 특수시책 추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군산시,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 추가 신청접수

9월 말까지 추가 신청 접수... 가구당 최대 344만 원 철거비 지원 등

군산시가 석면으로 만들어진 노후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해 발암물질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3년부터 환경부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군산시는 지난해까지 총 975가구의 석면 슬레이트를 처리했으며, 올해에는 작년보다 증액된 총 9억 5,8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290가구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월부터 사업 신청을 접수해 현재 143동의 슬레이트 처리를 완료했으며, 9월 말까지 추가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대상은 슬레이트 지붕 주택 소유자로, 관할 읍면동에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 신청서와 건축물 위치도, 현장 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이후 현지 실사를 거쳐 가구당 최대 344만 원의 슬레이트 지붕철거비를 지원하며, 특히 장마철 폭우와 태풍으로 인해 슬레이트가 파손된 경우 신청 즉시 신속히 절차를 진행해 철거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읍시, 도시재생사업 구역 내 20년 이상 주택 집수리비 지원

3개 지구 지구별 20가구씩 전체 60가구 대상... 최대 1,000만 원까지

전북 정읍시가 도시재생 뉴딜사업 구역 내 노후주택에 대한 집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9월 4일 밝혔다.

정읍시는 현재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3개 지구(중심시가지형·공기업 제

안형·주거지지원형)를 대상으로 지구별 20가구씩 전체 60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불법 건축물이 아닌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으로 지붕, 창호, 담장, 대문, 외벽, 화단, 옥상 방수 등이며 지원금액은 최대 1,000만 원(자부담 10%)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이달 참여의향서 접수와 실태조사, 선정위원회 심사 등을 통해 대상 가구를 선정하고 실시설계 후 올해 사업에 착수해 2021년 상반기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정읍시 도시재생과(Tel. 063-539-5805)에 문의하면 된다.

전라북도, 2020 제21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공모

▶ 공모대상

가. 일반 부문(사용승인)

- 전라북도 내에 건축된 건축물 중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포함)된 건축물
- 전라북도 외 지역의 건축물로서 전라북도 소재 건축사사무소 작품 [공공/일반(주거·비주거·한옥) 분야로 구분]

나. 학생 부문

1) 건축계획

- 자유로운 주제로 도내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건축계획 작품
- 전라북도 소재 대학교(캠퍼스 포함) 재학생(휴학생 포함)의 건축계획 작품

2) 기술계획

- 자유로운 주제의 건축기술계획 작품

다. 건축사진 부문

- 전라북도 내 건축물을 소재로 한 건축사진 작품

▶ 접수기간 : 2020. 10. 6.(화) ~ 10. 7.(수) 09:00 ~ 18:00

▶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 전라북도건축사회 홈페이지 알림광장, 전북건축문화제 참고

▶ 문 의

- 전라북도 주택건축과 T. 063-280-4386 F. 063-280-2359
- (사)전라북도 건축문화진흥 연합회 T. 063-251-6040 F. 063-251-6048

전북 회원동정

• 변경(소재지)

- 강정용 건축사 / 삼호설계 건축사사무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주천동로 473, 203호
- 권환주 건축사 / (유)건축사사무소 산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새터로 120, 701호
- 송태천 건축사 / (유)진성 건축사사무소 / 전북 익산시 인북로4길 15-1

• 부고

- 서일석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예담 / 부친상 - 08월 15일(토)
- 김형민 건축사 / 대기 건축사사무소 / 부인상 - 08월 25일(화)

※ 정정합니다.

지난 8월호(129호) 동정에 게시된 채가을, 강경남 건축사 '전입'을 '입회'로 정정합니다.



군산상공인을 대표하는 군산상공회의소가 군산을 이끌어가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자 업무시설 및 공연장을 갖춘 업무문화 복합시설로 계획하였으며, 역동적 이미지 형태와 회원 서비스를 위한 열린 마음을 강조하기 위해 노출콘크리트와 마감 유리재를 반영하여 계획하였다.



음식 및 스토리마켓 건립 건축설계 공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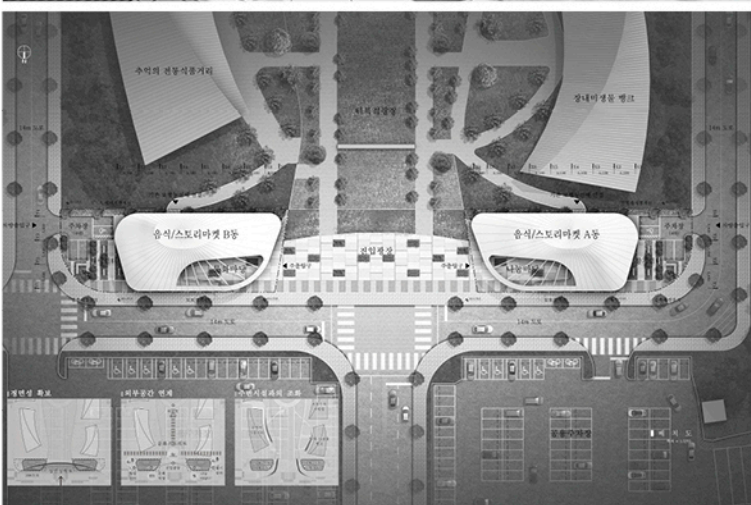
당선작 : 강천 건축사사무소

순창군 순창읍 백산리 투자선도지구 참살이 발효마을 조성사업을 기반으로 발효산업에 대한 자원집적도, 유무형 자원, 관광객의 높은 수요 전망으로 한국형 복합 관광지로서 가능성이 풍부하나 전통식품산업의 기반인 발효기술에 산업적 융복합이 미약한 실정으로 순창군의 전통식품산업의 기반인 발효기술에 산업적 융복합화로 성장견인 소비와 연계된 콘텐츠 접목으로 장류·발효·미생물산업을 확장하고, 최적의 건축물을 설계하고자 함.

- 대지위치 :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백산리 276-1번지 투자선도지구 일원
- 대지면적 : 2,100.0㎡(2단지)
- 지역·지구 : 계획관리지역, 산업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연 면 적 : 1,800.0㎡ 2동(범위 내 조정 가능)
- 규 모 : 지상 2층(2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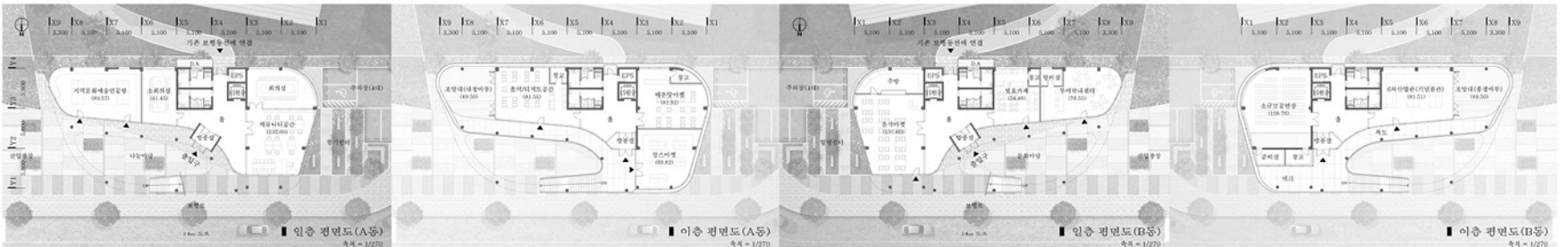
당선작

김병수 건축사 / 강천 건축사사무소



Ⅰ A동 평면도

Ⅱ B동 평면도



책 소개 _ 김영란 주부 / 광주 광산구 수완동

이토록 공부가 재미있어지는 순간

박성혁 저 / 다산 3.0 / 2015. 02. 02.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책 한 권을 고를 때마다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베스트셀러이기도 한 '이토록 공부가 재미있어지는 순간'은 앞으로 자라나는 내 아이에게 어떻게 공부를 시켜야 하는지 길잡이가 됐다.



이 책은 민사고 학생들이 '성경'처럼 반복해서 읽은 책으로 저자가 서울대 법대, 연세대 경영대, 동신대 한의대에 동시 합격한 비결이 담겨져 있다.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국 서점 청소년 분야 1위를 고수하고 있는 이 책으로 많은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졌다.

이 책은 공부의 본질을 전하고 있는데 저자는 아무리 좋은 공부법을 알아도 공부하고자 하는 '단단한 마음'과 '공부의 재미'를 느끼지 못한다면 결코 성적을 올릴 수 없으리라 말한다.

더불어 공부의 목적을 '성공'이나 '경쟁'이 아닌 '성장'에 두어, 내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공부'로 자신의 '인생'과 '꿈'을 준비하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공부에 대한 기술적 메시지가 아니라 공부에 대한 전체적인 자세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청소년 자녀를 둔 학부모나 학업에 지친 청소년들에게 권장하고 싶다.

세상사는 느낌 _ 이 들 학생기자 / 조선대학교 건축학과(5년제)

다시 비대면, 2학기를 준비하는 학생들

사라질 것만 같던 코로나19는 다시금 우리들의 일상을 빼앗아갔다. 그저 한 날 해프닝으로 끝날 것만 같던 팬데믹은 2학기가 시작하는 지금까지도 우리들의 일상을 삼키고 있다.

대학생활에 대한 기대를 한가득 품고 입학한 20학번 신입생들은 OT도, MT도, 심지어는 그 흔한 술자리 한 번 못한 채 2학기를 맞이하였다. 2학기에는 축제도, 엠티도 갈 수 있을 거란 생각에 견뎌냈던 지난 학기를 뒤로하고 신입생들이 이번 학기에는 과연 어떤 희망을 가지고 이겨내야 할 것인가 걱정이 된다.

2020학년도 2학기에는 블렌디드(혼합형)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블렌디드 수업이란, 학교에서의 대면수업과 줌(zoom)/스카이프를 활용한 비대면(온라인)수업을 병행하는 것이다. 잠시나마 동기들과 함께 얼굴을 맞대고 수업을 들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진 것도 잠시, 또다시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됨에 따라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어 수업은 전면

한 편의 시 _ 濟堂 추원호 / 건축사사무소 신세대그룹

불행 중 다행

코로나19가 2020년 초에 온 것만 해도 참 다행이다

만약 10년 전에 왔다면 교육계나 사회는 손을 못쓰고 엄청 혼란할 뻔 했다

10년전에는 동영상 시스템도 화상 시스템도 없었을 때이다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항상되지도 못했을 때 그때 왔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나마 지금 이 시대에 온라인 시스템이 준비되었을 때 온 것만 해도 다행이다

코로나는 시대를 아는 영리한 존재인가

우리에게 새로운 도약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준비하라는 신호인것 같다



GarryKillian / Freepik

화재에 강하다!

www.dkboard.kr

준불연가등급

DK본 EPS 단열재

외단열용(2' X 4')
건축용(3' X 6')
판넬용(나등급)

DK보드 건축용은 최적의 무기난연제인 팽창흑연을 비드내에 함침시켜 난연성능이 향상된 소재에 자체개발한 특수 고난연 물질을 도포 마감한 고난연 친환경 준불연 가등급 단열재입니다.

- 준불연재료 공인시험기관 인증
- 열전도율 : 0.032 W/m·k
- 친환경 수성

DK | 주대 광 판 널
주디케이보드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우수한 물성과 광범위한 적용성을 가진
 초속경화형 폴리우레아 방수!!

조달구매를 통한 **원가절감!!**

- 우수한 내구연한 및 접착강도
- 철재지붕, 옥외 주차장, 수직벽체 등 다양한 곳에 적용 가능한 뛰어난 시공성

조달제품 문의 : 윤현창 010-3618-6053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용도 / 규격	t2mm 옥상/주차장	t3mm 옥상/주차장	t2mm 철제지붕
제품 단가 (VAT 포함)	45,000원	56,000원	47,000원
바탕정리비 포함 / 현장설치도			